

초대면의 언어행동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대학생의 대조연구*

洪珉杓**

< 要 旨 >

초대면의言語行動に関する韓国、中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大学生の対照研究

この論文は2004年3月から9月の間に韓国, 日本, 中国, オーストラリアの大学生1,172人(男子499人, 女子673人)を対象に初対面の言語行動に対する反応を国別, 性別に对照分析をおこなったものであるが(調査期間: 2004.3-2004.9), 質問項目別の内容を要約すれば次のようになる。

- (1) 名前については四か国ともに不快感をほとんど感じないが, 親の仕事に関する質問については四か国ともに不快感を感じると答えている。
- (2) テニス, 英会話, 運転のような個人の能力に関する質問について日本人とオーストラリア人は不快感をあまり感じないが, 韓国人の男女と中国の女性は不快感をかなり感じる事がわかった。
- (3) アルバイトや海外旅行の経験の有無のようにお金と関係している質問について韓国人の男女はかなり不快感を感じるが, 日本人, オーストラリア人, 中国人はほとんど不快感をあまり感じない事がわかった。
- (4) 宗教や左右の銘のような個人の人生観に関係する質問や話題について日本人とオーストラリア人は不快感を感じるが, 中国人と韓国人はあまり不快感を感じない事がわかった。

主題語: 初対面, 不快感, 言語行動,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对照分析, ポライテネス

1. 연구의 목적

최근에 유학이나 해외지사 근무 등의 이유로 외국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국적인 상식과 언어행동의 룰(rule)이 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경험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오해나 트러블의 원인은 자국의 상식이나 사회적 룰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나 역사적 배경이 다른 각각의 사회에 태어나 성장한 사람은 각각 그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A00403).

**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사회언어학

된 상식이나 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회의 상식이나 사회적 룰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어에 의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타문화 간의 접촉에서는 오히려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히, 처음 만나는 경우에는 어떤 화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좋은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아니면 실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문제는 각 언어사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초대면에 질문이나 화제를 선택하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족구성이나 직업과 같은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보아도 어떤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큰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모든 언어사회에는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성과 그 사회만 통용되는 특수성이 있게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대면의 언어행동에 대한 각 언어사회의 룰(rule)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국, 일본, 중국, 호주의 남녀 대학생 1,172명을 대상으로 각 질문항목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조사하여 차이점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대조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 특별히 초대면의 언어행동을 대조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초대면의 언어행동이 잘못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히 전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어 인간관계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끼리 행하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초대면의 언어행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초대면의 언어행동에 대한 국제비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같은 한자문화권이며 동양인으로 지금까지 주로 비교의 대상이 되어온 한일 양국인 만의 대조연구에서 탈피하여 최근에 한국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인, 그리고 영어권이며 서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최근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호주대학생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4개국간 초대면의 언어행동에 대한 대조고찰을 시도한다는 것은 최근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 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3. 조사의 개요

조사는 2004년 3월부터 9월에 걸쳐 각국의 수도, 즉 한국은 서울, 일본은 동경(오사카도 포함), 중국은 북경(北京), 호주는 캔베라(Canberra)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임의샘플링(convenience sampling)으로 선정한 1,172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한 집단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조사인원과 평균연령은 <표1>과 같다.

<표1> 조사대상자의 프로필

국가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전체
성별	조사인원	133명 (40.8%)	114명 (42.9%)	191명(43.8%)	61명(42.4%)	499명(42.6%)
	평균연령	22.4세	20.2세	19.6세	21.1세	20.7세
남자	조사인원	193명(59.2%)	152명(57.1%)	245명(56.2%)	83명(57.6%)	673명(57.4%)
	평균연령	21.1세	19.9세	19.9세	20.4세	20.3세
여자	조사인원	326명(100%)	266명(100%)	436명(100%)	144명(100%)	1172명(100%)
	평균연령	21.6세	20.0세	19.8세	20.7세	20.5세

조사 방법은 각각의 질문항목에 대한 반응을 「상당히 불쾌하다」 「조금 불쾌하다」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전혀 불쾌하지 않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하도록 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 Ver.10을 이용했다. 질문항목은 <표2>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속성에 관련된 것 4개, 개인능력에 관련된 것 4개, 금전에 관련된 것 3개, 인생관에 관련된 것 2개, 등 대학생의 초대면 화제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제 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2> 질문 항목(13)

분류	질문항목	분류	질문항목
개인속성 ¹⁾ (4)	이름	개인능력(4)	영어회화가능 여부
	나이		운전가능 여부
	가족관계		스키장
	부모직업		테니스가능 여부
금전관련(3)	아르바이트 유무	인생관(2)	종교
	해외여행 경험 유무		좌우명
	자동차보유 유무		-

4. 조사의 결과 및 분석

4.1 개인속성에 관련된 질문항목

4.1.1 이름

<표3> 「이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63.9	80.3	73.6	64.9	80.3	73.7	90.6	95.1	93.1	82.0	88.0	85.4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33.8	17.6	24.2	27.2	13.8	19.5	8.9	4.5	6.4	13.1	10.8	11.8
소계	97.7	97.9	97.8	92.1	94.1	93.2	99.5	99.6	99.5	95.1	98.8	97.2
조금 불쾌하다	1.5	1.6	1.5	7.9	4.6	6.0	0.5	0.4	0.5	4.9	1.2	2.8
상당히 불쾌하다	0.8	0.5	0.6	-	1.3	0.8	-	-	-	-	-	-
소계 (불쾌도)	2.3	2.1	2.1	7.9	5.9	6.8	0.5	0.4	0.5	4.9	1.2	2.8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3>은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이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국인 남녀와 중국남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쾌하지 않다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어 초대면의 화제로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남녀와 중국남자의 「전혀 불쾌하지 않다」는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해 일본, 호주인과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또는 그다지)불쾌하지 않다는 비율이 4개국 모두 90%를 넘고 있어 조사대상 국가의 초대면인 대학생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4개국 모두 「전혀 불쾌하지 않다」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1.2 나이

우리는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로 알고 있는데 <표4>의 결과를 보면 4개국 모두 불쾌하지 않다는 비율이 80%를 넘고 있어 의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4>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39.8	39.4	39.6	61.4	46.1	52.6	85.3	77.1	80.7	67.2	65.1	66.0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51.9	49.2	50.3	30.7	26.3	28.2	13.1	19.2	16.5	19.7	20.5	20.1
소계	91.7	88.6	89.9	92.1	72.4	80.8	98.4	96.3	97.2	86.9	85.6	86.1
조금 불쾌하다	6.8	9.3	8.3	4.4	24.3	15.8	1.6	3.3	2.5	13.1	9.6	11.1
상당히 불쾌하다	1.5	2.1	1.8	3.5	3.3	3.4	-	0.4	0.2	-	4.8	2.8
소계 (불쾌도)	8.3	11.4	10.1	7.9	27.6	19.2	1.6	3.7	2.7	13.1	14.4	13.9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다만, 중국여자는 (조금 또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비율(불쾌도)이 27.6%를 보이고 있어 초대면에 나이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²⁾.

그러나 중국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불쾌도는 모두 20% 이하로 나타나 4개국의 초대면인 대학생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초대면의 언어행동으로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1.3 부모직업

<표5> 「부모직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15.0	11.9	13.2	30.7	28.9	29.7	42.9	27.3	34.2	52.5	42.2	46.5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31.6	29.5	30.4	45.6	34.2	39.1	34.0	43.7	39.4	23.0	28.9	26.4
소계	46.6	41.4	43.6	76.3	63.1	68.8	76.9	71.0	73.6	75.5	71.1	72.9
조금 불쾌하다	43.6	49.2	46.9	19.3	28.9	24.8	17.8	25.3	22.0	14.8	21.7	18.8
상당히 불쾌하다	9.8	9.3	9.5	4.4	7.9	6.4	5.2	3.7	4.4	9.8	7.2	8.3
소계 (불쾌도)	53.4	58.5	56.4	23.7	36.8	31.2	23.0	29.0	26.4	24.6	28.9	27.1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5>는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부모직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4개국 남녀 모두 20% 이상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여 초대면의 화제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인 남녀는 50% 이상의 높은 불쾌도를 보여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부모직업에 대해서 한국인은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언어행동으로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직업에 대해 4개국 모두 남자보다 여자의 불쾌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1.4 가족관계

<표6>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36.8	43.0	40.5	36.8	34.9	35.7	68.6	68.2	68.3	60.7	54.2	56.9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39.8	46.1	43.6	43.0	28.3	34.6	22.5	26.5	24.8	26.2	30.1	28.5
소계	76.6	89.1	84.1	79.8	63.2	70.3	91.1	94.7	93.1	86.9	84.3	85.4
조금 불쾌하다	21.1	9.8	14.4	18.4	30.3	25.2	8.4	4.9	6.4	9.8	13.3	11.8
상당히 불쾌하다	2.3	1.0	1.5	1.8	6.6	4.5	0.5	0.4	0.5	3.3	2.4	2.8
소계 (불쾌도)	23.4	10.8	15.9	20.2	36.9	29.7	8.9	5.3	6.9	13.1	15.7	14.6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6>은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국남자와 중국인 남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80% 이상이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남자와 중국인 남녀는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³⁾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인과 호주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인의 경우는 평균 93.1%가 전혀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초대면의 일본인에게 가족관계를 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름, 나이, 가족관계, 부모직업과 같은 개인 속성에 관한 나라별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차이는 약간 있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4개국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부모직업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초대면의 화제로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와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인은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 일본인, 호주인은 대체로 자연스러운 화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개인능력에 관련된 질문항목

4.2.1 테니스 가능여부

<표7> 「테니스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32.3	35.2	34.0	64.9	50.7	56.8	63.9	65.7	64.9	63.9	67.5	66.0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42.1	48.2	45.7	31.6	32.2	32.0	25.7	26.5	26.1	21.3	21.7	21.5
소계	74.4	83.4	79.7	96.5	82.9	88.8	89.6	92.2	91.0	85.2	89.2	87.5
조금 불쾌하다	17.3	14.0	15.3	3.5	13.8	9.4	8.9	7.8	8.3	8.2	8.4	8.3
상당히 불쾌하다	8.3	2.6	4.9	-	3.3	1.9	1.6	-	0.7	6.6	2.4	4.2
소계 (불쾌도)	25.6	16.6	20.2	3.5	17.1	11.3	10.5	7.8	9.0	14.8	10.8	12.5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7>은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테니스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4개국 모두 80% 이상의 학생들이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자연스러운 질문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남자의 경우, (조금 또는 상당히를 합친) 불쾌도가 25.6%인 것으로 나타나 초대면의 한국남자에게 테니스 가능여부와 같은 개인의 능력(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것은 비교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여자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의 남녀대학생들에게 테니스 가능여부를 묻는 것은 초대면의 언어행동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영어회화 가능여부

<표8> 「영어회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18.0	11.4	14.1	64.9	40.8	51.1	56.0	53.9	54.8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42.1	34.7	37.7	31.6	33.6	32.7	28.3	33.1	31.0
소계	60.1	46.1	51.8	96.5	74.4	83.8	84.3	87.0	85.8
조금 불쾌하다	27.8	47.7	39.6	1.8	17.8	10.9	11.0	11.4	11.2
상당히 불쾌하다	12.0	6.2	8.6	1.8	7.9	5.3	4.7	1.6	3.0
소계 (불쾌도)	39.8	53.9	48.2	3.6	25.7	16.2	15.7	13.0	14.2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표8>⁴⁾은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영어회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일본인과 중국남자는 80% 이상이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한국남자는 39.8%, 여자는 53.9%, 중국여자는 25.7%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같은 한자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인은 영어회화 가능여부를 묻는 초대면의 화제에 대해 남녀모두 80% 이상이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중국인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남녀 모두 영어회화 가능여부에 대한 초대면의 질문에 일본인 남녀보다 훨씬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특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영어회화에 대한 질문의 반응을 남녀별로 보면, 일본은 차이가 없으나 한국과 중국인은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불쾌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능력 또는 실력에 관한 질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 만난 한국인 남녀나 중국여자에게 영어회화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불쾌감을 주는 질문이지만, 일본인 남녀와 중국남자에게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운전 가능여부

<표9> 「운전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36.1	31.1	33.1	68.4	52.0	59.0	70.7	68.6	69.5	77.0	65.1	70.1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43.9	52.8	49.4	24.6	27.0	25.9	23.6	25.3	24.5	13.1	27.7	21.5
소계	80.0	83.9	82.5	93.0	79.0	84.9	94.3	93.9	94.0	90.1	92.8	91.6
조금 불쾌하다	17.3	14.0	15.3	5.3	16.4	11.7	4.7	6.1	5.5	8.2	3.6	5.6
상당히 불쾌하다	3.8	2.1	2.8	1.8	4.6	3.4	1.0	-	0.5	1.6	3.6	2.8
소계 (불쾌도)	21.1	16.1	18.1	7.1	21.0	15.1	5.7	6.1	6.0	9.8	7.2	8.4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9>는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운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국남자와 중국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80% 이상의 학생들이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초대면의 언어행동으로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인과 호주는 90% 이상이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남자와 중국여자의 경우, (조금 또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비율이 21.0%인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불쾌도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4개국 남녀 모두 운전가능 여부에 대한 화제는 비교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운전이 이제는 어느 나라나 대학생들에게도 필수사항처럼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2.4 스키장

<표10> 「스키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24.1	18.1	20.6	54.4	46.7	50.0	69.1	71.4	70.4	62.3	65.1	63.9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41.4	43.0	42.3	34.2	27.6	30.5	24.1	22.0	22.9	24.6	24.1	24.3
소계	65.5	61.1	62.9	88.6	74.3	80.5	93.2	93.4	93.3	86.9	89.2	88.2
조금 불쾌하다	23.3	34.2	29.8	8.8	21.7	16.2	5.8	6.5	6.2	8.2	7.2	7.6
상당히 불쾌하다	11.3	4.7	7.4	2.6	3.9	3.4	1.0	-	0.5	4.9	3.6	4.2
소계 (불쾌도)	34.6	38.9	37.2	11.4	25.6	19.6	6.8	6.5	6.7	13.1	10.8	11.8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10>은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스키장에는 자주 가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국인 남녀와 중국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학생들은 모두 80% 이상이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인 남녀는 90% 이상이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스키장에 관한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어회화 가능여부와 마찬가지로 한국남자는 34.6%, 여자는 38.9%, 그리고 중국 여자는 25.6%가 (조금 또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여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키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본인과 호주인은 거의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데 비해, 한국인과 중국인은 비교적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테니스, 영어회화, 운전, 스키장을 소재로 개인의 능력에 관한 초대면 화제로서의 반응을 본 결과, 일본인과 호주인(영어회화는 제외)은 대체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데 비해, 한국인과 중국인은 남녀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체로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회화와 스키장에 관한 초대면의 질문에 대해 한국인 남녀와 중국인 여자는 대단히 높은 불쾌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금전에 관련된 질문 항목

4.3.1 아르바이트

<표11>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27.1	27.5	27.3	64.0	56.6	59.8	75.4	65.3	69.7	54.1	59.0	56.9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52.6	52.3	52.5	28.9	34.2	32.0	17.8	28.2	23.6	34.4	32.5	33.3
소계	79.7	79.8	79.8	92.9	90.8	91.8	93.2	93.5	93.3	88.5	91.5	90.2
조금 불쾌하다	17.3	17.1	17.2	6.1	7.9	7.1	5.8	5.7	5.7	6.6	6.0	6.3
상당히 불쾌하다	3.0	3.1	3.1	0.9	1.3	1.1	1.0	0.8	0.9	4.9	2.4	3.5
소계 (불쾌도)	20.3	20.2	20.3	7.0	9.2	8.2	6.8	6.5	6.6	11.5	8.4	9.8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11>은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국인은 모두 20% 정도의 불쾌도를 나타낸 반면, 나머지 3개국은 남녀 모두 20% 이하의 불쾌도를 나타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처음 만난 한국인에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비교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행동인데 비해, 나머지 3개국의 학생에게는 전혀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한국의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학비나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해결한다는 자부심보다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비해 일본, 중국, 호주의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4.3.2 해외여행

<표12> 「해외여행」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30.1	21.2	24.8	58.8	53.3	55.6	68.6	64.9	66.5	67.2	63.9	65.3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33.8	47.7	42.0	29.8	27.0	28.0	21.5	27.3	24.8	26.2	25.3	25.7
소계	63.9	68.9	66.8	88.6	80.3	83.6	90.1	92.2	91.3	93.4	89.2	91.0
조금 불쾌하다	27.1	23.8	25.2	7.0	12.5	10.2	8.4	7.3	7.8	6.6	8.4	7.6
상당히 불쾌하다	9.0	7.3	8.0	4.4	7.2	6.0	1.6	0.4	0.9	-	2.4	1.4
소계 (불쾌도)	36.1	31.1	33.2	11.4	19.7	16.2	10.0	7.7	8.7	6.6	10.8	9.0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12>는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표8>의 스키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남녀 모두 20% 이상의 불쾌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나머지 3개국 대학생은 모두 80% 이상이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인과 호주인은 90% 이상이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초대면의 언어행동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3.3 자동차 유무

<표13> 「자동차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22.6	25.9	24.5	57.9	41.4	48.5	64.9	64.5	64.7	57.4	59.0	58.3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33.1	33.7	33.4	28.9	28.3	28.6	26.2	24.9	25.5	19.7	25.3	22.9
소계	55.7	59.6	57.9	86.8	69.7	77.1	91.1	89.4	90.2	77.1	84.3	81.2
조금 불쾌하다	35.3	32.1	33.4	8.8	19.7	15.0	7.3	9.4	8.5	16.4	12.0	13.9
상당히 불쾌하다	9.0	8.3	8.6	4.4	10.5	7.9	1.6	1.2	1.4	6.6	3.6	4.9
소계 (불쾌도)	44.3	40.4	42.0	13.2	30.2	22.9	8.9	10.6	9.9	23.0	15.6	18.8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13>은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자동차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국인은 남녀모두 40% 이상의 불쾌도를 나타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여자와 호주남자도 20% 이상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인은 남녀모두 전혀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르바이트와 해외여행 경험의 유무와 같은 금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 남녀는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인 반면, 일본인과 호주인, 중국인은 모두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일본인을 제외한 한국인, 호주남자, 중국여자도 불쾌감을 보여 일본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4.4 인생관에 관련된 질문 항목

4.4.1 종교

<표14>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37.6	40.4	39.3	44.7	59.2	53.0	53.9	40.0	46.1	37.7	47.0	43.1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36.1	42.0	39.3	37.7	24.3	30.1	24.6	34.7	30.3	44.3	28.9	35.4
소계	73.7	82.4	78.6	82.4	83.5	83.1	78.5	74.7	76.4	82.0	75.9	78.5
조금 불쾌하다	15.0	15.5	15.3	15.8	11.2	13.2	14.1	20.8	17.9	14.8	19.3	17.4
상당히 불쾌하다	11.3	2.6	6.1	1.8	5.3	3.8	7.3	4.5	5.7	3.3	4.8	4.2
소계 (불쾌도)	26.3	18.1	21.4	17.6	16.5	17.0	21.4	25.3	23.6	18.1	24.1	21.6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14>는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국남자, 일본인 남녀, 호주여자는 20% 이상의 불쾌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여자, 중국인 남녀, 호주남자는 20% 이하의 불쾌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속 성이나 능력, 또는 금전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일본인이 남녀 모두 20% 이상의 불쾌도를 보인 것은 특이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오쿠야마(1997)는 「일본어를 배

우는 한국인이 첫 대면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종교, 정치, 한일간의 미묘한 문제에 대한 의견, 기만과 등을 피하고 가족, 친구, 본인과 밀접한 화제를 취하여 적당히 침묵하고 있는다면 큰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처음 만난 일본인에게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4.2 좌우명

<표15> 「좌우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나라별 반응 결과(%)

국별 반응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호주인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혀 불쾌하지 않다	36.1	33.7	34.7	46.5	60.5	54.5	51.8	44.9	47.9	42.6	43.4	43.1
그다지 불쾌하지 않다	39.1	51.3	46.3	43.0	23.7	32.0	27.2	34.7	35.6	32.8	33.7	33.3
소계	75.2	85.0	81.0	89.5	84.2	86.5	79.0	79.6	83.6	75.4	77.1	76.4
조금 불쾌하다	19.5	13.5	16.0	9.6	13.8	12.0	16.8	16.7	15.4	13.1	21.7	18.1
상당히 불쾌하다	5.3	1.6	3.1	0.9	2.0	1.5	4.2	3.7	3.2	11.5	1.2	5.6
소계 (불쾌도)	24.8	15.1	19.1	10.5	15.8	13.5	21.0	20.4	18.6	24.6	22.9	23.7
합계(%) (조사인원)	100 (133)	100 (193)	100 (326)	100 (114)	100 (152)	100 (266)	100 (191)	100 (245)	100 (436)	100 (61)	100 (83)	100 (144)

<표15>는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동년배에게 「좌우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종교와 마찬가지로 한국남자, 일본남녀, 호주남녀는 20% 이상의 불쾌도를 나타내는데 비해, 한국여자, 중국남녀는 20% 이하의 불쾌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대면의 화제로서 종교와 같은 인생관이나 내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인이 나 중국인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인에게는 초대면의 화제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표14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5. 질문항목별 불쾌도의 순위비교(남녀별)

<표16>은 각국별로 13개의 질문항목에 대한 불쾌도가 높은 순위를 남녀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 중에서 20%가 넘는 질문항목 수를 보면 우선 한국남자가 11개(84.6%)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중국여자 7개(53.8%), 한국여자 6개(46.2%)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쾌도가 높은 질문항

목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상대방의 질문 또는 화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한국 남자는 13개의 질문항목 중에서 나이와 이름을 제외한 11개(84.6%)의 질문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보여 4개국 남녀 8개의 집단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집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남녀와 중국여자가 초대면의 질문 또는 화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남녀와 호주 남녀, 그리고 중국남자는 불쾌도가 20% 넘는 질문항목 수가 3개 이하로 나타나 한국인 남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초대면의 화제나 질문에 상당히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조사의 결과로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번 조사대상자가 2차대전 직후에 출생한 소위 베이비 붐 세대의 2세에 해당하는 현재 대학생 세대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⁵⁾.

<표16> 질문항목에 대한 불쾌도(%)의 나라별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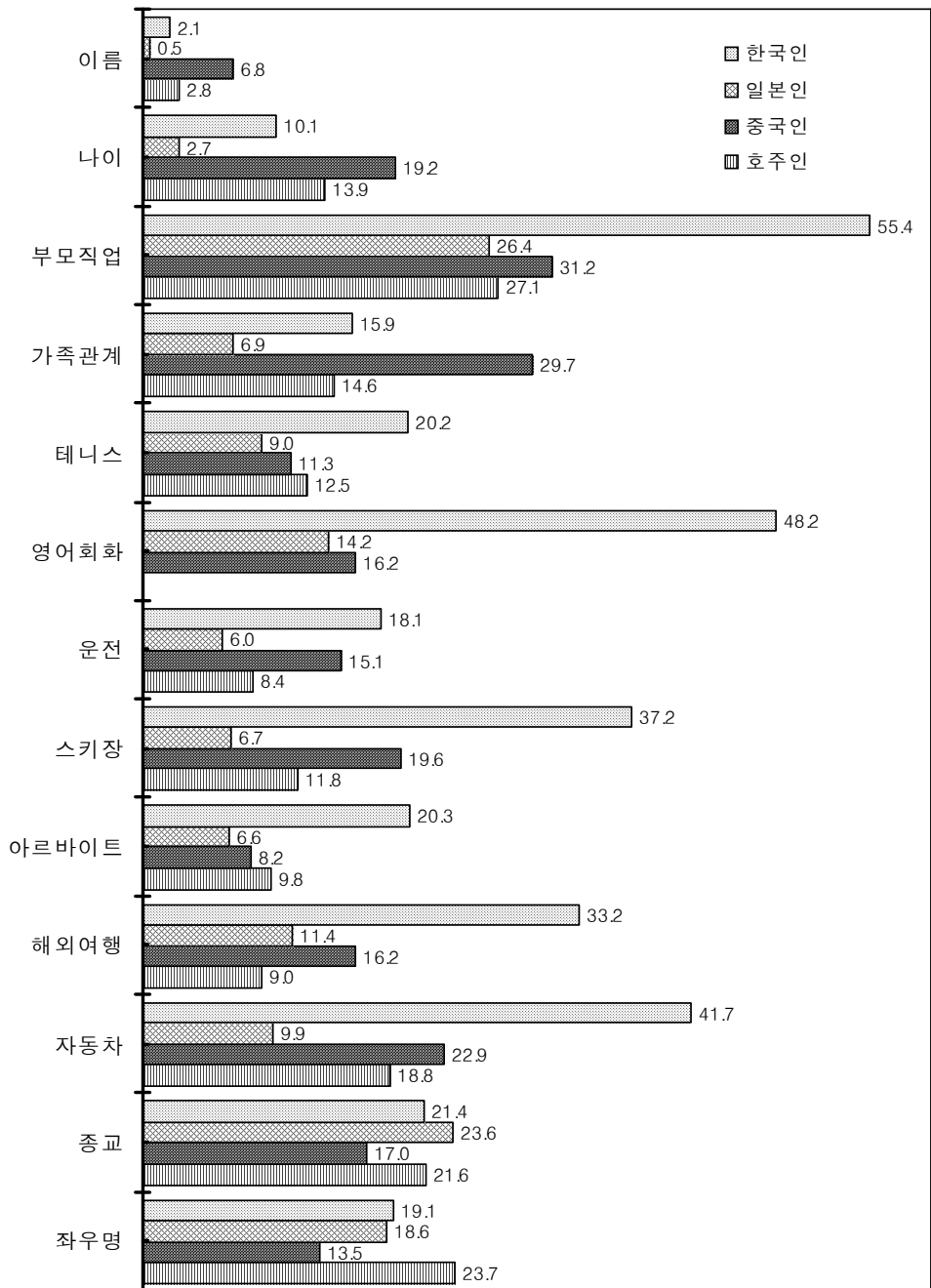
한국인						일본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순위	질문항목	불쾌도	순위	질문항목	불쾌도	순위	질문항목	불쾌도	순위	질문항목	불쾌도
1	부모직업	53.4	1	부모직업	58.5	1	부모직업	23.0	1	부모직업	29.0
2	자동차	44.3	2	영어회화	53.9	2	종교	21.4	2	종교	25.3
3	영어회화	39.8	3	자동차	40.4	3	좌우명	21.0	3	좌우명	20.4
4	해외여행	36.1	4	스키장	38.9	4	영어회화	15.7	4	영어회화	13.0
5	스키장	34.6	5	해외여행	31.1	5	테니스	10.5	5	자동차	10.6
6	종교	26.3	6	아르바이트	20.2	6	해외여행	10.0	6	테니스	7.8
7	테니스	25.6	7	종교	18.1	7	가족관계	8.9	7	해외여행	7.7
8	좌우명	24.8	8	테니스	16.6	8	자동차	8.9	8	아르바이트	6.5
9	가족관계	23.4	9	운전	16.1	9	스키장	6.8	9	스키장	6.1
10	운전	21.1	10	좌우명	15.1	10	아르바이트	6.8	10	운전	6.1
11	아르바이트	20.3	11	나이	11.4	11	운전	5.7	11	가족관계	5.3
12	나이	8.3	12	가족관계	10.8	12	나이	1.6	12	나이	3.7
13	이름	2.3	13	이름	2.1	13	이름	0.5	13	이름	0.4
20% 이상 질문항목 수											
11개(84.6%)			6개(46.2%)			3개(23.1%)			3개(23.1%)		

중국인						호주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순위	질문항목	불쾌도	순위	질문항목	불쾌도	순위	질문항목	불쾌도	순위	질문항목	불쾌도
1	부모직업	23.7	1	부모직업	36.9	1	부모직업	24.6	1	부모직업	28.9
2	가족관계	20.2	2	가족관계	36.9	2	좌우명	24.6	2	종교	24.1
3	종교	17.6	3	자동차	30.2	3	자동차	23.0	3	좌우명	22.9
4	자동차	13.2	4	나이	27.6	4	종교	18.1	4	가족관계	15.7
5	해외여행	11.4	5	영어회화	25.7	5	테니스	14.8	5	자동차	15.6
6	스키장	11.4	6	스키장	25.6	6	나이	13.1	6	나이	14.4
7	좌우명	10.5	7	운전	21.0	7	스키장	13.1	7	스키장	10.8
8	나이	7.9	8	해외여행	19.7	8	가족관계	13.1	8	해외여행	10.8
9	이름	7.9	9	테니스	17.1	9	아르바이트	11.5	9	테니스	10.8
10	운전	7.1	10	종교	16.5	10	운전	9.8	10	아르바이트	8.4
11	아르바이트	7.0	11	좌우명	15.8	11	해외여행	6.6	11	운전	7.2
12	영어회화	3.6	12	아르바이트	9.2	12	이름	5.9	12	이름	1.2
13	테니스	3.5	13	이름	5.9						
20% 이상 질문항목 수											
2개(15.1%)			7개(53.8%)			3개(23.1%)			3개(23.1%)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직업에 대한 질문에는 4개국 남녀가 공통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인은 자동차 유무, 영어회화 가능여부, 해외여행, 스키장, 아르바이트 유무 등, 개인의 능력이나 금전과 관련된 질문이나 화제에 남녀 공통으로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과 호주인은 부모직업 이외에, 종교와 좌우명에 남녀가 공통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인은 개인의 능력이나 종교, 좌우명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그다지 느끼지 않지만,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남녀가 공통으로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질문항목별 불쾌도의 4개국 비교

<그림1>은 이번 조사항목 전체의 불쾌도를 남녀 구분 없이 나라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보면 <표16>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이름, 나이, 가족관계, 종교, 좌우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불쾌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직업, 영어회화, 스키장, 해외여행, 자동차보유 유무 등, 주로 개인의 능력이나 자존심에 관련된 항목의 불쾌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본인은 부모직업과 종교, 좌우명에 대한 불쾌도가 높게 나타나 있으며, 중국인은 나이, 부모직업, 가족관계와 같은 개인의 속성이나 신상에 관련된 항목의 불쾌도가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직업과 종교, 좌우명에 대한 불쾌도가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일본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질문항목별 불쾌도(%)의 4개국 비교

7. 초대면의 언어행동과 Politeness

지금까지 초대면의 언어행동으로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질문항목별 반응을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한 질문이라도 나라별로 불쾌도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조사결과, 같은 질문이라도 불쾌도가 높은 것도 있고, 불쾌도가 낮은 항목도 많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쾌도가 높은 질문항목이다. 왜냐하면, 질문항목에 대한 불쾌도가 높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Face를 위협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Brown, P. & Levinson, S.C.(1987)의 Politeness이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Brown, P. & Levinson은 누구나 대인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욕구로서 Positive Face와 Negative Face의 두 종류의 Face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Positive Face란 타인과 친해지기를 바라고, 동료로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구, 즉, 긍정적인 욕구를 말하며, Negative Face란 타인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거나, 친해지고 싶지 않은 욕구, 즉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다는 부정적인 욕구를 말하는데, Brown, P. & Levinson에 의하면 초대면의 언어행동으로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Positive Face도 Negative Face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한다.

즉,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대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Positive Face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질문을 해서 상대방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행위는 방해받고 싶지 않거나, 자유롭게 있고 싶어 한다는 Negative Face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Brown, P. & Levinson이 지적한대로 초대면의 언어행동으로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질문항목이 Positive Face와 Negative Face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 조사결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동일한 질문이라도 질문항목에 따라 불쾌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나라별로도 반응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상대방의 Face를 위협하지 않는 질문, 즉 불쾌도가 20%이하인 질문항목을 나라별로 잘 파악을 하여 초대면의 언어행동으로서 잘 활용한다면 상대방의 Face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원활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면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나라별로 대조, 고찰하는 이와 같은 사회언어학적인 조사결과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 일본, 중국, 호주의 대학생 1,172명(남자 499명, 여자 673명)을 대상으로 초대면의 질문이나 화제에 대한 반응을 국가별, 성별로 대조, 분석을 해 보았는데,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개인 속성에 관한 질문 중에서 이름에 대해서는 4개국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부모직업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초대면의 화제로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나이와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인은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 일본인, 호주는 대체로 자연스러운 화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테니스, 영어회화, 운전 등의 가능 여부와 같은 개인의 능력이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반응을 본 결과, 일본인과 호주인(영어회화는 제외)은 거의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데 비해, 한국인과 중국인은 남녀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체로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회화에 관한 초대면의 질문에 대해 한국인 남녀와 중국인 여자는 대단히 높은 불쾌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아르바이트와 해외여행 경험의 유무, 등 금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한국인 남녀는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인 반면, 일본인과 호주인, 중국인은 전부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4)종교와 좌우명과 같은 내면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일본인과 호주인은 공통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인 반면, 중국인과 한국인은 대체적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13개의 질문항목 중에서 불쾌도가 20%가 넘는 질문항목 수를 보면 한국남자가 11개(8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여자 7개(53.8%), 한국여자 6개(46.2%)순으로 되어 있어, 한국인이 중국인이 나 일본, 호주인에 비해 초대면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注】

- 1) 속성이란 남녀, 연령, 직업, 거주지역, 학력 등 한 인간에 附帶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특성이란 다른 집단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사회적 상황, 경험, 행동, 습관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방송대학 학생」은 속성이며, 「생애학습 경험자」는 특성이다.(이와나가외, 岩永雅也외, 1997)
- 2) 본고에서는 「조금 불쾌하다」와 「아주 불쾌하다」를 합친 비율(%)을 편의상 「불쾌도」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불쾌도(%)를 기준으로 20% 이하이면 초대면의 언어행동으로서 「자연스러운 질문」 또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판정하고, 20% 이상이면 「부적절한 질문」 또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판정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20%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질문항목별 평균불쾌도가 전체적으로 20%정도이기 때문이다.
- 3) 奥山(2004)도 한국 남자대학생에게 피해야 할 초대면의 화제로서는 정치문제와 종교, 그리고 가족관계를 들고, 일본 남자대학생에게 피해야 할 초대면의 화제로서는 이성 친구를 들고 있다.
한편, 한국 여자대학생에게 피해야 할 초대면의 화제로서는 진로문제와 취직문제를 들고, 일본 여자대학생에게 피해야 할 초대면의 화제로서는 이성 친구와 스피치 레벨의 교섭을 들고 있다.
- 4) <표5>에서 호주대학생의 결과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되었음.
- 5) 2차 대전 직후에 사회적으로 베이비붐을 일으키며 갑자기 많이 태어난 세대를 團塊世代(だんかいせだい)로 부르는데, 이번 조사대상자는 그 2세에 해당하는 소위 신인류라 불리는 세대이며, 이들 세대의 행동양식은 일본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에도 그와 같은 젊은 일본인 세대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参考文献】

- 오쿠야마 요코(1997)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인과 한국인을 만난 경험이 없는 일본인과의 첫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어지는 화제 내용과 그 시간 배분에 관한 고찰」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제5집,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奥山洋子(2004) 『한국인과 일본인의 첫 만남의 대화』 보고서
- 홍민표(2000)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사행동에 관한 대조언어학적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37, 한국일어일문학회

홍민표(2004) 「첫 대면의 화제선택과 반응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12-2, 한국사회언어학회
 岩永雅也・大塚雄作・高橋一男(1997) 『社会調査の基礎』 放送大学教育振興会
 荻野綱男(1996) 「調査結果をどうまとめるか」 『言語』 25-6, 大修館書店
 宇佐美まゆみ(2001) 「対人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社会心理学-ディスコース・ポライトネスという
 観点から」 『言語』 30-6, 大修館書店
 三牧洋子(1999) 「初対面会話における話題選択スキーマとストラテジー」 『日本語教育』 103,
 日本教育学会
 ネウストプニー, J.V.(1982) 『外国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 岩波新書
 Brown, P. & Levinson, S.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要 旨 >

초대면의 언어행동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대학생의 대조연구

본 논문은 한국, 일본, 중국, 호주의 대학생 1,172명(남자 499명, 여자 673명)을 대상으로 초대면의 질문이나 화제에 대한 반응을 국가별, 성별로 대조, 분석을 한 것으로(조사기간: 2004.3-2004.9),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름에 대해서는 4개국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부모직업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초대면의 화제로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와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인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 일본인, 호주는 대체로 자연스러운 화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테니스 가능 여부, 영어회화 가능 여부, 운전 가능여부, 스키장 등, 개인의 능력에 관한 반응을 본 결과, 일본인과 호주인(영어회화는 제외)은 대체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데 비해, 한국인과 중국여자는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아르바이트와 해외여행 경험의 유무 등, 금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한국인 남녀는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보인 반면, 일본인과 호주인, 중국인은 전부 불쾌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 (4) 종교와 좌우명과 같은 내면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일본인과 호주인 남녀는 공통적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반면, 중국인과 한국인은 공통적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민표(洪珉杓)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번지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053-580-5220, 011-519-5220
 hmp@kmu.ac.kr

- 투 고 일 : 2004년 9월 30일
- 심사개시 : 2004년 10월 10일
- 심사완료 : 2004년 10월 25일